

제 5 장

바른 말의 모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딤후 1: 13-14).

〈바른〉 말의 모범

영어 단어 하이젠(hygiene, 위생학)은, 이 구절에서 “바른”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어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웁실론”(υ)이라는 철자가, 영어로 그 단어를 쓸 때는 “와이”(y)가 됩니다. 헬라어로 휘기아이노(ὑγιαίνω)라는 말은 “잘 있다, 건강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 동사의 분사형 명사는 “건강함”입니다. 여기서 “바른”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와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 그 단어는 “정통”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바울은 디모데전서 1:10에서 “바른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른”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참되고 신실한 정통 설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이 사색해서 얻은 의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그 말씀에

참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교훈이 흔들리고, 설교에 힘이 없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몸에 뼈대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몸에 쓸모없는 고기 덩어리를 뭉쳐 놓은 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가르침이나 설교에는 위대한 교리의 틀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힘을 “바른” 또는 “정통적인”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 하느니라(고전 2:13).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놀라운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 기관의 크리스찬 시온 투데이 (Christian Zion Today)지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즉,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인간의 지혜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고 말씀하신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런 구절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리고는 말하는 사람이나 작가나 선지자의 이름이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환상이나 경험이나, 의견 제시가 아니라—그 특정한 개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환상이나 경험일지라도 참된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른 말의 〈모범〉

바울은 “바른 말을 〈본받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는 모범, 본보기, 형식, 정형이라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는 휘포튀포오(*ἵποτυπ-όω*)인데, 그 뜻은 “윤곽을 그리다, 틀을 잡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의 명사형인 휘포튀포시스(*ἵποτύπωσις*)는 정형이나 모델, 또는 모범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의도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13에 기록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말고,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대조하면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같이 연구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틀이나 윤곽, 즉 교리의 핵심이 떠오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에 보태거나 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만 충실하게 말씀을 제시한다면, 말씀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모범은 하늘로부터 아름답게 영적으로 축복된 것—즉, “바른”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다섯 개의 점으로 별을 그리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각도를 변경하지만 않는다면 아무리 멀리 그 점들을 늘려서 투영시켜도, 그것은 언제나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훌륭한 다섯 점을 가진 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각도를 바꾼다면, 우리들은 균형을 변경시키는 셈이고, 그렇게 되면 아름답지도 균형잡히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그 모형이나 틀을 변경하고 왜곡시킴으로써 그것은 더 이상 참된 순수한 별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기에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제시한다면, 그 말씀은 언제나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가 믿는 것의 각도

를 변경한다면, 그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설교자가 자기의 교리 제시의 방향을 변경한다면, 그의 설교는 바뀌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그 교리의 가르침을 다른 각도로 변경한다면 교회가 변질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의 틀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틀을 그대로 간직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균형잡힌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바른 말의 모범-그 핵심, 모델, 정형, 본-은 언제나 일관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는 참된 것이었다가 다음날은 거짓된 것이 되는 어떤 것을 계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동일할 것입니다. 이 원리를 하나님의 계시에 적용해 본다면, 그것은 놀랍고, 또 때로는 두려운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실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고정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이나 영원토록 주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지옥은 1600년 전에도 지옥이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처럼 문명시대에는 지옥은 연단의 시기라고 제안하거나 지옥은 아예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영원히 참되며, 만약 수백년 전에 지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옥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면, 오늘날에도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였으며, 그 본질에 있어서 타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심령과 의지와 삶이 다 타락했다고 말씀하셨다면-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세기 전에 그렇게 가르치셨다면,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참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속죄는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애

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피 아래 있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의 속죄는 요한일서 1:7의 용서의 교훈에서도 동일합니다. 즉,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레위기 17:11에서 모세 율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은 영원히 올바른 것입니다. “단”은 “단”이고, “뿌려”는 “뿌려”이며, “생명을 위하여”는 “생명을 위하여”이고, “속하게”는 “속하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된 모습을 기대하게 해 주는 틀을 사용해서 하늘의 언어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위대한 선택의 교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창세기 12:15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에서 선택이 참된 것이었다면,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가르치는 로마서의 선택이 참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대해서 선택을 말할 때도 그것은 참된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참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바른 말의 모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연구해서 드러난 이 교리의 핵심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지역에 있는 우리와는 다른 일부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원하며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2 더하기 2는 유럽에서만 4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에서도 역시 4입니다. 2더하기 2가 미국에서라고 6이 되거나 5/8가 되거나 25가 될 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서 발견되든, 어디서 전달되든, 그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학을 깊이 연구하시더라도, 최초의 기본적인 사실은 언제나 근본적이고 사실적으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바

꾸어 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간단한 산수에서 배웠던 네가지 기본 사실들-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은 우리가 대수학을 아무 리 깊이 파고 들어가도 동일한 것입니다. 새로운 발견은 우리가 이미 참된 것으로 밝혀 놓은 것을 애매하게 하거나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이해력과 포용력이 성장해 감에 따라 무엇인가 다른 것을 우리가 배우고, 무엇인가 미래의 사실들이 우리에게 계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거의 진리에 모순 되거나 그것에서 이탈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보편적입니다. 저 밖의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책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또 다른 책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권의 위대한 책을 쓰셨습니다-하나나는 자연이고, 하나는 성경입니다.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원하며 보편적입니다.

스티븐 와인버그 박사(Dr. Steven Weinberg)는 하바드 대학의 물리학 교수입니다. 그 분은 최근에 노벨 물리학 상을 탄 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1977년에 『우주의 기원에 관한 현대의 관점』(*A Modern View of the Origin of the Universe*)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세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의 둘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우주는 “우주론적인 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것은 피조된 우주 전체를 통해서 통일성이 있고 보편적인 법칙을 확실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주는 등방성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등방성이 있다는 것은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같게 보인다는 뜻이며, 동질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관찰자가 보아도 같게 보인다는 뜻이다. 이 우주론적인 원리는 모든 과학적인 연

구의 기초가 된다. 우리가 사람들을 달에 보낼 때, 우리들은 달에서도 우리가 지구 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법칙이 지배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냈던 것이다.

우주 전체에 걸쳐서 그 법칙은 통일성이 있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미국인을 목성이나 화성에 보내든 아니면 시베리아 지역에 보내든, 우리가 여기서 아는 법칙은 거기서 관찰된 법칙과 동일한 것입니다!

와인버그 박사는 계속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2)우주는 하나의 통일체이다. 우주는 원자와 분자들이 어지럽게 돌면서 방향성없이 서로 충돌하는 거대한 복합체 이상의 것이다. 우주에는 질서가 있으며 따라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의 우주 속에는 어디서나 참되고, 언제나 동일하며 영원히 적용되는 놀라운 우주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신 또한 권의 책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에는 형태와 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정형과 모델을 따르며, 우리가 그것을 바울이 말한대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과 비교하면서” 볼 때에 우리들은 그 말씀이 영원히 참되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이전에도 수세대에게 적용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타당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다가 올 세대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하늘에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말의 모범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말은 하나님의 감동에서 유래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말들을 데오프뉴스토스(θεόπνευστος),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의 형태와 틀과 모델과 그 핵심은 주님의 영, 숨길(호흡),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신학계에는 자유주의적인 사람들, 소위 고등비평을 한다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고대 문학의 집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수천년 전의 무지몽매한 원시인들이 기록한 작품의 수집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성경이 수천년 전에 살았던 무지몽매한 원시인들에 의해 쓰여진 고대 문학의 수집에 불과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의 진보되고 문명화된 시대에 우리들이 더 좋은 성경책을 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더 훌륭한 무엇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수천년 전에 성경을 기록했던 그 사람들은 작고, 멸시받고, 미움받던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진 작은 곳에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인쇄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들어가서 연구할 커다란 도서관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실험실이 있었겠습니까? 연구센터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세계의 다른 문화 중심지들에서 소식을 전달해 주는 증기선 하나, 비행기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AP 통신이나 UPI 통신 기관도 없었고 앞에 펴놓고 읽을 신문 한 장도 없었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우리 발밑의 바위들의 신비나 우리 머리 위의 별들의 비밀을 밝혀놓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겠습니까? 우리들이 오늘날 더 훌륭한 성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들은 가장 좋은 대학들 중에서 최고의 석학들을 불러모으고는, 연구를 위한 커다란 도서관과 들어가서 살펴볼 실험실들을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더 좋은 성경을 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 훌륭한 사람들이 이천, 아니 사천, 아니 육천년 전에, 영감받은 성경의 기자들이 했던 일을 오늘날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퇴보하고 있다는 점을 수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그것을 수긍할 수 없을 것입

니다! 아니, 그들은 우리가 진보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화를 믿고, 우리가 동물에서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그러면 우리는 대천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참으로 진보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오늘날 이 성경보다 더 우수한, 더 좋은 성경을 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은 인간보다 위대한 근원, 인간 위에 있고, 인간을 초월하는 근원에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분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물질주의자들, 사이비 과학자들이 저를 아연실색케 합니다. 그들은 제가 보기에는 괴상한 생물들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바알신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오, 오, 빛을 보내소서! 불을 보내소서!” 그들은 맹목적인 열심과 열광으로 간구하는데, 그것이 저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도 없는 물건 앞에 가서 그들은 구걸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의미가 가진 비밀을 밝혀주소서!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은 제가 낮 뜨겁게 생각할 만큼 쉽사리 그것들을 믿어버리고 거기 파묻힙니다! 저는 다만 그들이 맹목적이고 우연한 요소들과 비인격적인 세력들에 대해 보여주는 정도의 깊이를 지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 기도할 따름입니다! 저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바알에게 부르짖을 수는 있겠지만 대답은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없는 물체에 대고 영원히 간구할 수야 있겠지만, 결코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맹목적인 힘을 모셔둔 곳에서 영원히 예배드릴 수는 있겠지만 인생의 의미에 대한 대답은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까? 내 앞에 행운이 있습니까? 그

들은 결코 대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없는 물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의 목표를 지시해 줄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 어둠이여, 어둠이여, 오, 밤이여, 밤이여!” 하고 부르짖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 어둠이여, 어둠이여, 오, 밤이여, 밤이여!” 하고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그들의 눈을 뜨게만 해주어도 그들은 가장 큰 권능 속에서 빛나는 그분,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바른 말의 모범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른 말의 모범은 우리의 모든 지상의 삶과 우리의 세속의 문제들과 우리의 인간적인 존재를 위해서 최종적이고, 충분하며, 완전히 적절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충분하고 완전해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 성경책 속에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현대론자들, 자유주의자들, “문명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20세기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종교와 옛날 교훈들은 낡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시대에 뒤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수천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었는지도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문명 시대에는 우리들은 다른 복음을, 새로운 신앙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만약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어쨌든 달라졌다면 맞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곤경과 인간의 죄와 인간의 부패함이,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판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수백년 전의 사람들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곤궁도 그당시 그들이 겪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달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은 그 위에서도 이곳

아래서와 여전히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창공을 날고, 또 한 사람은 얼룩덜룩하고, 귀가 축 늘어진 나귀가 끄는 흔들거리는 마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들은 같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는 영원히 같은 것입니다. 아담의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아브라함의 시대나, 다윗의 시대나, 이사야의 시대나, 또한 베드로의 시대나, 야고보의 시대나, 바울의 시대나, 요한의 시대나, 아니면 사보나롤라의 시대나, 위클리프의 시대나, 로저 윌리엄스의 시대나, 혹은 트뤼에(Truett)와 스카보루(Scarborough)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들은 언제나 버림받고 죽어가는 파멸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팔만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을 향상시켜서 인간의 부패성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끝없이 깊은 실패 속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단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팔로 우리를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세의 시대에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면서 진 중에 높이 들린 구리뱀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얻은 절망에 빠졌던 백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보시오, 나의 형제들이여, 보고 사십시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만 할 일입니다. 십자가를 높이 들고 지치고, 죄 많고, 죽음의 심판을 받은 영혼들에게 주 예수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를 바라 보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갑시다. 우리의 가족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갑시다. 우리의 문제들을 예수께 가져 갑시다. 모든 걱정과 눈물과 생의 결정들을 그에게로 가지고 갑시다. 한 밤중은 해가 떠오르지 않고는 결코 대낮으로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흑암도 말라기에서 말하듯이 “...그의 날개로 고침받지 않고는,” 즉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나시기까지는 영광과 밝음으로 결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집에서, 마음 속에서, 민족 중에서 우리를 위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것들에 눈을 돌렸다면, 우리들은 깨어진 물통과 텅 빈 샘물에 눈을 돌린 것입니다. 그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만 발견됩니다. 위대한 그 진리를 주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예수님 발 아래 경배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감사와 기쁨, 사랑과 찬양, 그리고 예배와 믿음 속에서 그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